

눈 퍼서 우물 채우듯... 퇴임 전날까지 일한 대법관



지난 3월 3일 오전 10시 대법원 11층 접견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둘러앉았다. 이날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조희대(제23회(1981년)사시) 대법관을 위해 마련한 ‘퇴임 티타임’이었다.

그동안 대법관이 법복을 벗는 날엔 대법원에서 정식 퇴임식이 열렸다. 그런데 조 대법관이 최근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이런 상황에서 퇴임식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떠나고 싶다.”는 뜻을 비쳐 간단한 티타임으로 대신한 것이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퇴임식이 취소된 3일 오전 조희대 대법관은 따로 퇴임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

김 대법원장은 죄송하고 아쉽다. 준비한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해달라고 했다. 다른 대법관은 “준비하신 퇴임사를 법원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라도 올려 후배 법관들이 봤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조 대법관은 “그냥 조용

히 가겠다.”며 사양했다고 한다.

조 대법관은 당초 퇴임식이 열릴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퇴임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 퇴임사에 “눈[雪]을 퍼서 우물을 채우는 심정으로 재판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티가 나지 않더라도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다는 취지다.

실제 그는 사건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에게 기록을 한 번 더 검토하자고 해 그의 사무실이 ‘기피 부서’로 꼽힐 정도였다. 후배 법관들은 “돌아보면 조 대법관 지시가 맞는 선택이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다.”고 평한다.

통상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 중앙 로비에서 기념 촬영을 하지만 조 대법관은 이마저도 하지 않은 채 이날 오전 11시쯤 관용차를 타고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한 대법관은 평소 인품대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셨다고 전했다.



〈2014년 3월 대법관 임명 당시 조 대법관이 취임사를 하는 모습〉

퇴임을 앞둔 대법관은 보통 3주가량 일하지 않고 신변을 정리한다. 그는 퇴임 전날까지 사건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다. 한 판사는 “(노태약) 후임 대법관이 쌓인 미제(未濟) 사건으로 힘들까 봐 끝까지 일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재임 중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가는 해외 연수도 가지 않았다. 주변에 대법관 끝나면 내 돈으로 가면 된다고 했다고 한다.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시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군 복무를 거쳐 1986년 서울형사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조 대법관은 진보 색채가 짙어진 김명수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 한 부장판사는 “법 조항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대법관이었다.”고 했다.

그는 2018년 11월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은 무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이 윤리적 내심 영역이라 법원이 심사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지난해 11월 이승만·박정희 前 대통령을 비방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방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사료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지난 1월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이 청와대(캐비닛) 문건을 (박영수) 특검에게 제공하고 특검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은, 특검의 직무상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비서실 또는 행정부의 이러한 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대통령 등의 막강한 행정력을 이용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의견을 냈다.

(출처/조선일보)